

성 유대절 베드로

청담동성당

강남구 삼성로 720 (홈페이지: www.cdssd.org)
 사무실: 02)3447-0750~1 팩스: 02)3447-0752

주 임 신 부 : 김민수 (이냐시오)
 부주임 신 부 : 심 욱 (베드로)
 부주임 신 부 : 방종우 (야고보)
 전 교 수 녀 : 박정숙 (아그리피나)
 좌희선 (보노사)
 이새롬 (엘카나)
 사 목 회 장 : 손영모 (가브리엘)
 연 령 회 장 : ☎ 010-7186-7222

주일미사	토요일	오후 3시(어린이 미사),	오후 7시
	일요일	오전 6시, 9시, 11시(교중미사),	오후 3시(중·고등부), 5시(청년), 7시(일반)
평일미사	월요일, 토요일	오전 6시	고 해 성 사
	화요일	오전 6시, 10시, 오후 7시	주 일 미사 전 30분
	수요일	오전 6시, 10시, 오후 7시	평 일 미사 전 15분
	목요일	오전 6시, 10시, 오후 7시	병자 영성체
	금요일	오전 6시, 10시, 오후 7시	유 아 세 례
			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
			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
			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

영 축 명

본당 사목활동을 하시는
이 엘카나 수녀님의 영명축일 (11월 1일)을
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·육간 건강을 위해
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축하식: 11월 1일(오늘) 11시 교중미사

2020년 11 ~ 12월 본당 추천 도서

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
 (글쓴이: 이영숙 수녀 / 출판사: 더비움)

30여 년간 환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,
 호스피스 길을 함께 걸은 이영숙 수녀
 (마뻔암재단 사무국장, 한국순교복자수녀회)가
 체험해 온 사랑 가득한 이야기 책.

정상가: 18,000원 → 할인가: 10,000원

- ◎ **고해성사: 11월 1일(오늘)부터 매 미사시간 전**
 • 평일: 미사 15분 전, 주일: 미사 30분 전
- ◎ **임산부 축복식: 11월 1일(오늘), 교중미사 중**
- ◎ **성시간: 11월 5일(목), 오후 7시 미사 후**
- ◎ **성모신심미사: 11월 7일(토), 오전 6시 미사**
- ◎ **유아세례: 11월 7일(토) 오후 4시 30분, 2층 대성전**
 • 접수마감: 11월 1일(오늘)까지 사무실 접수
- ◎ **'위령의 날' 합동 위령 미사 안내**
 • 11월 2일(월)은 '위령의 날'로 죽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. 합동위령 미사 중에 예물봉헌과 분향이 있으며, 미사 후 짧은 연도가 있습니다.
 • 미사봉헌: 11월 2일(월) 오전 6시
- ◎ **위령성월 사별가족 초청미사**
 • 대상: 2018년 11월 ~2020년 10월까지 본당에 교적을 두신 사별 가족

일시	시간	진행 및 장소
11월	오후 6시 20분	연 도 (2층 대성전)
17일	오후 7시	미 사 (2층 대성전)
(화)	오후 8시	다 과 (1층 프란치스코 홀)

- 문의: 연령회장 (010-7186-7222)
- ◎ **청담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**
 • 일시: 11월 4일(수) 10시 미사 후, 2층 대성전
 • 대상: 65세 이상, 즐거운 신앙생활을 희망하시는 분
 • 문의: 이 말가리다 (010-8572-7238)

- ◎ **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남성구역 한강걷기**
 • 일시: 11월 8일(일) 교중미사 후, 1층프란치스코홀 출발
 •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 된 남성구역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다지기 위해 한강 걷기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(* 점심, 저녁 제공)
 • 문의: 권 요아킴 (010-5391-9058)
- ◎ **사피엔스 작은 도서관 '한마음 한 책 읽기 서평회'**
 • 일시: 11월 5일(목) 오전 11시, 사피엔스 도서관
- ◎ **해외선교 아카데미 7주 프로그램 (대상: 30명)**
 • 일시: 11월 5일(목) ~12월 17일(목), 매주 목요일 오후 2시
 • 대상: 선교의식 강화와 단기 해외선교사 양성에 관심있는 분
 • 문의: 김 헬레나 (010-8771-0401)
- ◎ **청담 영성학교 (11월 5일(목) 20시, 2층 대성전)**
 • 강사: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

요셉 피퍼

20세기 위대한 독일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러 대학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였는데,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과 플라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, 60여 년 동안 철학자와 작가로서 서구의 철학 속에 스며있는 지혜의 전통이 현대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.

- ◎ **사랑의 연탄나눔 후원금 및 봉사자 모집**
 • 일시: 12월 5일(토) 오전 7시 30분, 성당 출발
 • 오전 9시~ 12시까지 연탄나눔 봉사활동, 후원물품 전달
 • 수급 대상자: 정릉동 성당 관내에 소외된 불우이웃
 •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 • 문의: 현 베로니카 (010-7169-7025)
- ◎ **천주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강사 양성교육모집**
 •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.
 • 일시: 11월 4일~6일(수~금) 오전 10시~ 오후 6시
 • 접수마감: 11월 2일(월), 교육비 1만원 (대상: 25명)
 • 주관: 한국정보화진흥원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), 천주교스마트침묵운동본부(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)
 • 문의: 성당 사무실 (02-3447-0750)
- ◎ **성모회 물품판매**
 • 직접 담근 알타리김치, 참기름, 들기름, 참깨, 들깨가루
 • 일시: 11월 7일(토) 저녁미사 후~ 11월 8일(주일)
- ◎ **11월 2일(월): 춘천교구 후원회미사 (10시)**

성가번호 입 당: 294 예물준비: 510, 215 성 체: 151, 178 파 견: 23

화 답 송

주 님 이 들 이 당 신 얼굴 을 찾 는 세 대 이 읍 니 다



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(144)

서평_「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」(1)_눈물

1. 용서의 눈물

취장암으로 인해 병원에서 온 몸에 호스를 달고 다니는 39살의 여성이 주인공이다. 자신이 죄인이라며 수녀님을 피했던 그 자매는 수녀님의 적극적인 설득에 자신의 마음을 연다. 시댁에 대한 원망과 한, 미움과 원한이 서려 있다. 그 자매는 시댁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. 시댁식구들은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 자매 집안이나 학벌과는 너무 차이가 났던 것이다.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셋방에서 동거를 시작한 이후 오랜 시간 시댁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견뎌냈던 자매님은 아들 둘을 낳은 후에도 며느리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.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다. 지금까지 남편만 믿고 견뎌온 시간들이 억울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식물인간이 된 남편에게 원망과 한을 쏟아내고 어느 때는 남편에게, 시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. 미움과 원망에 가득 차 있던 탓이었던가? 취장암에 걸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. 자신은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게 되고 식물인간 남편은 집에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다.

“수녀님, 저 너무 억울해요.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다 잘살고, 왜 저는 상처만 입었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해요? 저 너무 억울해서, 이렇게는 못 주겠어요. 죽기 전에 시집 식구, 남편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저도 편히 죽을래요.”(24쪽) 얼마나 시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였으면 이렇게 보복과 복수에 찬 처절한 절망을 고백할까? 이러한 한을 토로한 자매의 가슴 밑바닥에는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시댁식구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원의가 있다. 수녀님이 만난 시부모님은 그 자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것이다. 표현하지 못했을 뿐 이제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. 시부모는 그 자매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결혼식을 천주교 식으로 혼인식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자매의 생일날 병실을 찾아가 시부모님은 그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한다. 이 순간 그 자매는 그동안 높고 두껍게 쌓인 한과 응어리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. 그 자매는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례를 받고 혼인 성사를 하기로 한다.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어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자매는 집에 있는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며 결국 구급차로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뜻밖의 식물인간 남편 역시 사랑이란 단어를 가까스로 소리를 내면서 고백한다.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눈 후 그 자매는 남편의 가슴에서 숨을 거둔다.

2. 눈물은 신비

눈물이 신비인 이유는, “인간 속에서 나온 눈물은 영혼 육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”(38쪽)이다.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취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보여준 눈물은 시부모님, 시댁식구들 모두에게 눈물이 되어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‘눈물은 신비’라 하겠다. 원망, 한탄, 슬픔의 눈물보다 감사, 기쁨, 감동, 회개의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한다.

2020. 11. 01

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

♣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(10월 21일 ~ 10월 27일)

동헌 예물		교무금 납부 현황	
연중 제 30주일	7,964,600원	총 세대수	2,542세대
시설보수 2차	3,310,550원	총 납부세대	1,225세대
교무금	29,370,000원	지난 주 납부세대	12세대
성소후원금 (8건)	190,000원	총 납부율 (%)	48.2%
감사 헌금			
이 아퀴나스	5,000,000원	서 스테파니아	50,000원
곽 올리아나	50,000원	-	-
		합계: 5,100,000원	